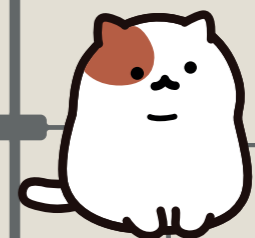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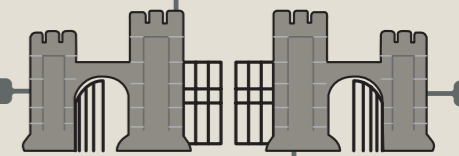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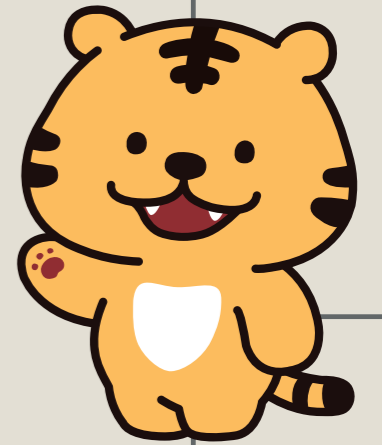


KU SEJONG

2026 VOL . 53

KOREA
UNIVERSITY
SEJONG
CAMPUS



30019,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2511
2511 Sejong-ro, Sejong City, 30019, Korea

T. +82-44-860-1114
F. +82-44-860-1048

s.korea.ac.kr
sejong.korea.ac.kr

CONTENTS

KU SEJONG 2026 Vol.53

발행인 양지운
편집인 김정학
발행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편집실 대외교류팀
 Tel. 044-860-1403
 Fax. 044-860-1004
 E-mail. kuszine@korea.ac.kr
기획 대외교류팀
취재·사진 대외교류팀
 KUS-ON 학생홍보기자단
디자인·제작 내일날씨 (02-334-1215)

※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대외교류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VER STORY & KUS SUCCESS

04 세종특별자치시를 연결하고, 산업을 움직인다
고려대학교 세종RISE사업의 성과와 미래

08 AI로 확장하는 전공교육, AI/DS 융합교육으로 미래를 열다

12 배움을 나누고 혁신을 만든다
교수학습정보센터, 유네스코 ESD 프로젝트 공식 인증 획득

14 지속가능한 내일을 잇다
학술정보원, 유네스코 ESD 프로젝트 공식 인증 획득

RESEARCH

16 전자및정보공학과 김성훈 교수 연구팀, 자기장 하나로 치료·추적·제어 통합 가능한 테라노스틱스 마이크로로봇 플랫폼 개발

17 전자·정보공학과 서성규 교수 공동연구팀, Cellytics® NK로 면역저하 환자 NK세포 특성 최초 규명

18 전자·정보공학과 황한정 교수 공동연구팀, 뇌졸중 환자 맞춤형 뇌전기자극 최적화 AI 기술 개발

19 생명정보공학과 백승필 교수 연구팀, 구조토 여과 기반 저비용·고효율 미세조류 바이오매스 대량수확 기술 개발

GLOBAL KUS

20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연구를 선도하다
InnovationCampus Future Mobility(ICM)를 만나다

22 학생 중심 교육의 혁신 모델을 써 내려가다
네덜란드 HZ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를 만나다

24 외국인 유학생 지원 강화로 글로벌 캠퍼스 도약 가속

창업 STORY & KUS STORY

26 귀로 듣는 영화관, 하이엔드 오디오의 진입장벽을 허무는 헤드폰을 만든다
스타트업 동아리 FlatSoul

28 스마트시티를 향한 기술 혁신의 현장
가족회사 (주)이화네트웍스를 만나다

30 AI로 그려 낸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미래
KU Sejong AI 영상 공모전 수상자를 만나다

32 불멸식공, 세대를 잇는 연결의 힘
식품생명공학과 교우회

KUS SKETCH

34 Photo KU,
사진으로 보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KUS STUDY & KUS TODAY

36 배움으로 세상을 잇다
서비스러닝 교과목이 만드는 함께하는 세상

38 KUS TODAY

아름다운 기부

42 '천원의 아침밥'에
농협 햅쌀 1,800kg 더해진다
NH농협은행 세종본부

43 연구로 이어진 뜻, 세종에서 피어나다
정균화 명예교수 연구기금 약정식 및 수여식

44 기억을 잊히다
95학번 돌벤치 제막식

45 배움을 잇는 동행
고려대학교 직원장학회

46 제1회 KUS 고대인의 밤 행사 개최

47 모교를 향한 사랑, 나눔으로 실천하다
국제스포츠학부 노승희 교우

48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세종특별자치시를 연결하고, 산업을 움직인다

고려대학교 세종RISE사업의 성과와 미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RISE)사업에 선정되며 참여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사업비를 배정받았다. 이는 고려대 세종캠퍼스가 세종시가 추진하는 RISE사업 내에서 다수의 단위 과제를 주관하며 사업 운영 전반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려대 세종RISE사업단은 대학이 보유한 교육 및 연구 역량을 지역 혁신과 연계하며 '지역을 설계하는 대학'이라는 역할을 구체적인 사업과 성과로 풀어내고 있다.

창업 연계형 R&D — R&BD 지원 프로그램

사업모델(BM) 수립 및
기술 컨설팅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인증



PoC
(Proof of Concept)



시장 검증 및 피봇팅



투자유치 연계



전주기
지원

RISE사업 추진 체계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진하는 RISE사업은 지역 혁신을 중심으로 대학, 산업, 연구기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가운데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미래모빌리티, 정보보호, 양자 등 세종시가 지정한 미래전략산업 분야의 주도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세종시가 추진하는 다섯 개 단위 과제 모두에서 주관대학의 역할을 맡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단위 과제는 창업 지원, 기술사업화, 전문가 협의체 운영, 클러스터 포럼 개최, 교육 및 인재 양성, 지역 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각 단위 과제의 기획과 운영 과정에 참여하며 세종RISE사업 전반에서 주관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창업 연계형 R&D/R&BD 지원 프로그램 운영

창업 연계형 R&D/R&BD 지원 프로그램은 세종지역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업모델(BM) 수립과 기술컨설팅을 시작으로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인증, PoC(Proof of Concept), 시장(고객) 검증과 피봇팅, 투자유치 연계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는 전주기 지원 체계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BM 및 기술컨설팅이 제공되었으며, 이후 시제품 제작과 시험·평가·인증을 통해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가 이어졌다. 또한 PoC와 시장(고객) 검증 과정에서 실사용 환경을 기반으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확인 절차가 진행되었고, 필요에 따라 피봇팅*이 이루어졌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투자유치 연계 지원이 제공되었다.

이와 같은 전주기 지원 구조를 통해 총 40건의 지원 성과가 도출되었으며,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각 단계의 지원을 순차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이와 같은 전주기 지원 구조를 통해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는 사업화 과정 전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기술 고도화와 시장 검증이 연계된 지원 체계가 구축되었다. 이는 향후 사업화 및 후속 지원으로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봇팅: 기존에 하던 방향이나 전략을 유지하되, 핵심 가정이나 접근 방식을 바꿔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



〰〰
 각 단위 과제의
 기획과 운영
 과정에 참여하며
 세종RISE사업
 전반에서
 주관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산업주도대학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RISE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업주도대학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였다. 전문가 협의체는 미래모빌리티, 정보보호, 양자 등 전략 분야별로 교수, 연구기관, 기업, 지원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해당 협의체는 세종RISE사업의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과 협의를 수행하였으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은 창업지원 과제, 지역정책 연계 과제, 클러스터 포럼, 기술사업화 컨설팅, 글로벌 인증 지원센터 등 다양한 단위 과제로 확산·활용되었다. 이러한 협의체 운영을 통해 총 30건의 운영 성과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전략 분야별 의견 수렴과 자문 체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었으며, 협의체 논의 결과가 단위 과제 전반에 반영되는 연계 구조가 구축되었다.

기술사업화 컨설팅 운영 및 산업주도대학 클러스터 포럼 개최

산업주도대학 기술사업화 컨설팅 사업은 미래모빌리티, 정보보호, 양자 분야의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하여 전환기술 분석, 서비스 및 콘텐츠 사업화 검토, 기술 적용 가능성 진단 등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별 사업화 로드맵과 후속 지원 연계 전략이 마련되었으며, 총 25건의 운영 성과가 기록되었다.

또한 산업주도대학 클러스터 주관 포럼을 개최하여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교류의 장을 운영하였다. 총 4번의 포럼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별 핵심 동향과 기술 수요가 공유되었으며,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력 구조가 형성되었다. 또한 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과 수요를 중심으로 한 사업화 지원 경험이 축적되었으며, 세종RISE사업 전반의 기술사업화 추진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① ② — 세종시 디지털 헤리티지 특별전 개최
 ③ ④ — 2026 한·미 K-Science 컨퍼런스 운영



한누리 캠퍼스 구축·운영 참여

이와 더불어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세종RISE사업의 시그니처 과제인 '한누리 캠퍼스' 구축·운영에 참여하였다. 한누리 캠퍼스는 세종시 내 대학이 보유한 강의·연구 장비, 기숙사 및 각종 교육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여러 대학을 하나의 통합 캠퍼스처럼 운영하는 협력 플랫폼이다.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강의 및 시설 공유 체계 구축을 비롯해 산학협력 분야의 인적·물적 네트워크 조성에 참여하였으며,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과 학점 인정 교과목 개설을 위한 제도 정비 또한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세종시 내 대학 간 교육·연구 자원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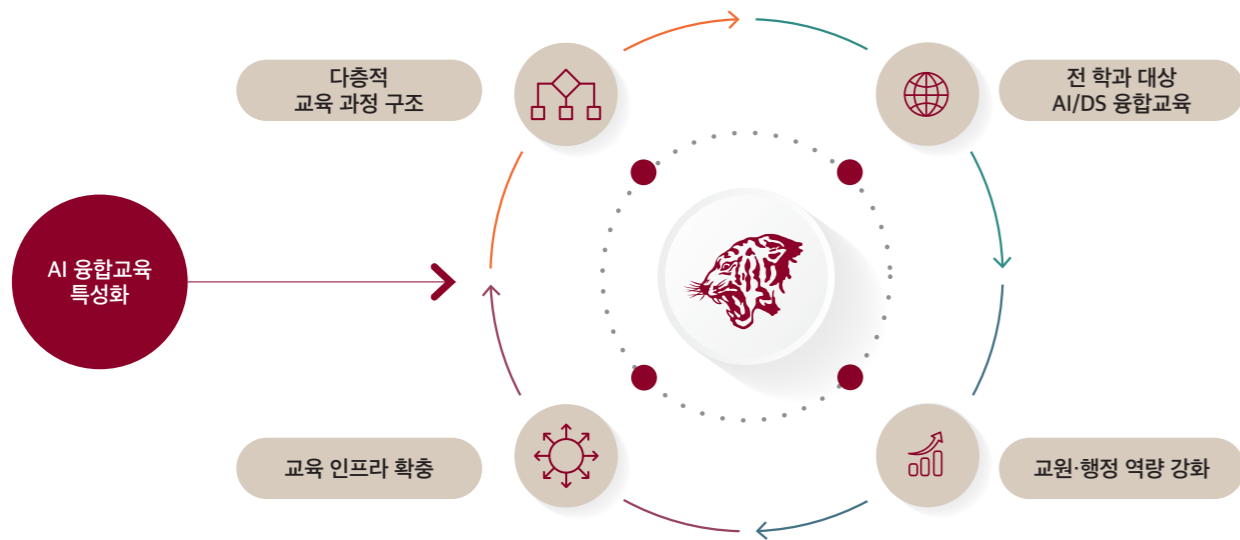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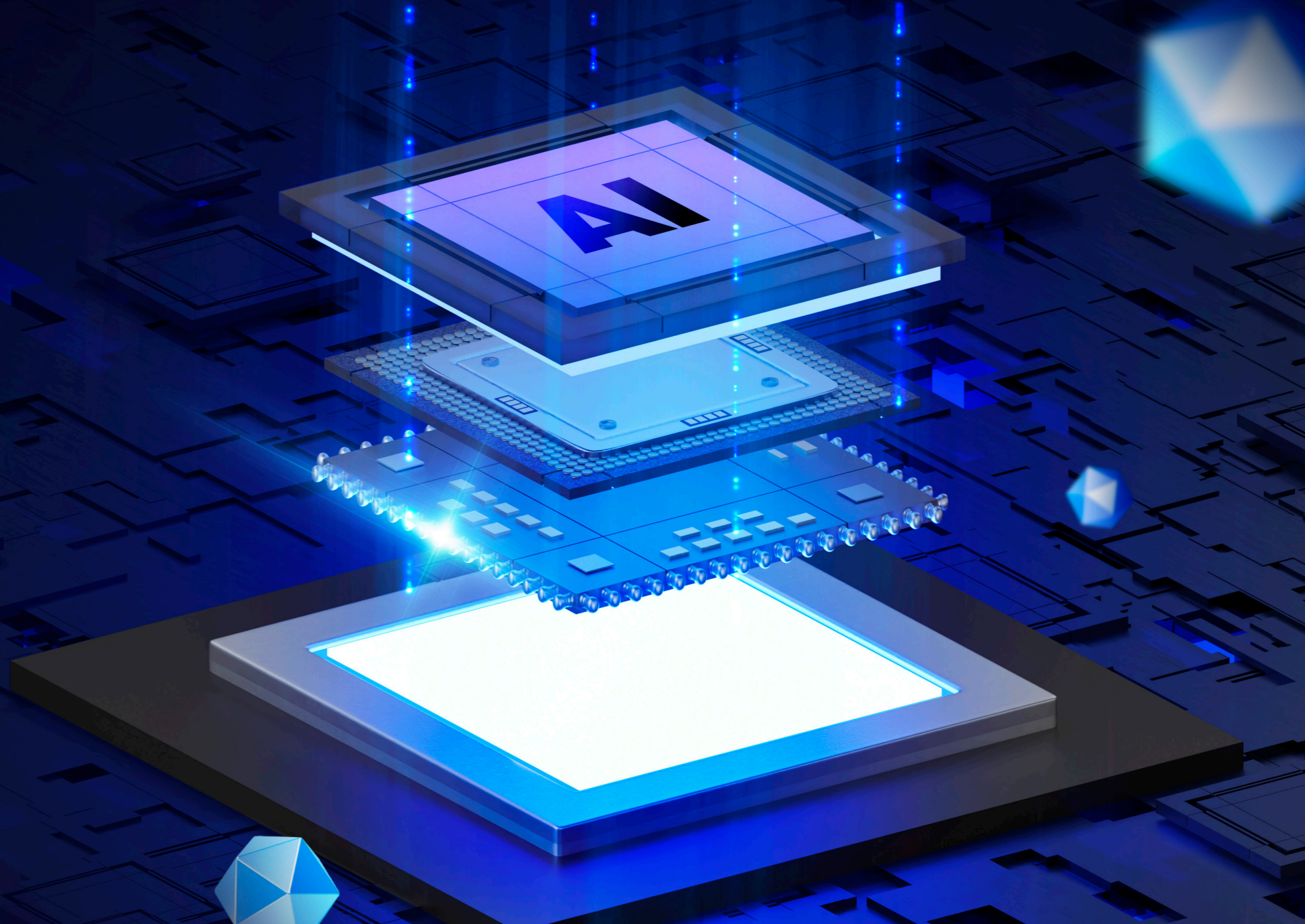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세종RISE사업을 통해 창업 지원, 기술사업화, 전문가 협의체 운영, 클러스터 포럼 개최, 교육 및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단위 과제를 추진해 왔다. 이러한 사업 추진 경험과 운영 성과는 향후 세종시 내 대학, 산업, 연구기관, 지자체 간 협력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지역 기반 혁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AI로 확장하는 전공교육, AI/DS 융합교육으로 미래를 열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학문과 산업의 경계를 빠르게 허물고 있다. 이것이 공학이나 컴퓨터 전공·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제조·문화·스포츠·보건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대학 교육도 전공 중심에서 융합과 활용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문사회, 정책, 문화, 스포츠, 약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과 AI 활용 능력이 기본 소양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전공교육에 AI를 결합한 교육 체계 전환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전 학과를 대상으로 AI/DS(Data Science) 융합교육을 추진한다. 이는 일부 학과에 한정된 선택적 전환이 아니라 캠퍼스 전체 교육 방향을 점진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공 기반 전문성에 AI 활용·개발 역량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결합하는 교육 구조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 방향은 고려대 세종캠퍼스가 위치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 산업 환경과도 밀접하게 연계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스마트시티 조성, 디지털 행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의 환경은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AI 활용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이러한 지역 환경을 교육에 반영해 특정 전공에 국한되지 않고 AI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전 학과 대상 AI/DS 융합교육 추진

AI/DS 융합교육은 하나의 방식으로만 운영되지 않는다.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학과와 학생의 여건을 고려해 AI/DS 트랙, AI/DS 융합전공, 마이크로디그리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먼저 AI/DS 트랙은 각 학과의 기존 전공 체계 안에서 AI와 데이터 활용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학과 자체 역량을 바탕으로 AI/DS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경우 전공교육과 AI 교육을 연결해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AI/DS 융합전공은 학과 단독으로 AI 특성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한 교육 방식이다.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전자및정보공학과 등 AI/DS 관련 학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과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한 융합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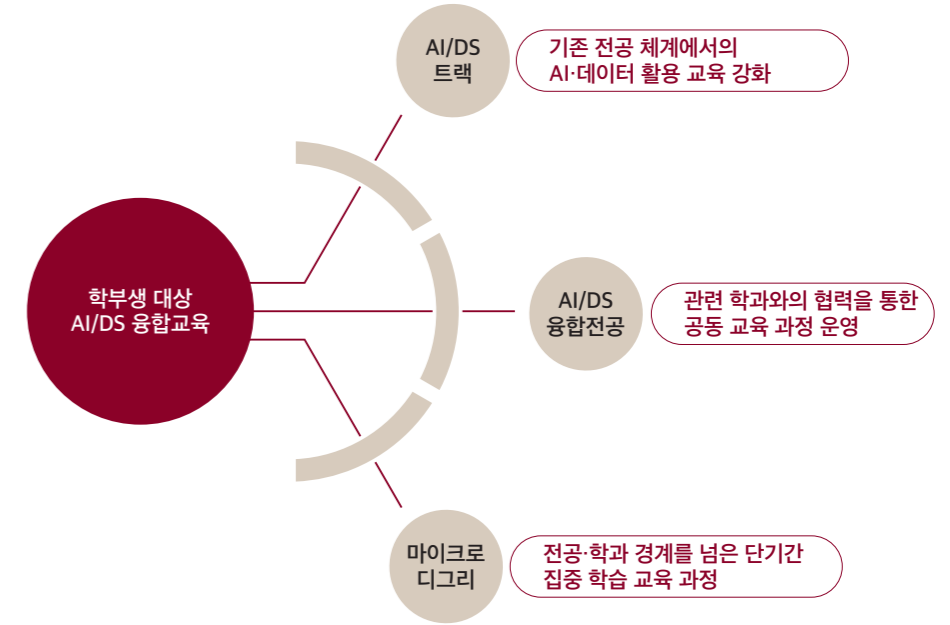
마이크로디그리는 전공이나 학과의 경계를 넘어 AI/DS 관련 핵심 역량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 과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연계해 필요한 AI-데이터 역량을 선택적으로 강화하며 변화하는 학습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전공 특성을 살린 AI/DS 융합교육 설계

고려대 세종캠퍼스의 AI/DS 융합교육은 모든 전공에 동일한 모델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다. 각 학문 분야의 특성과 교육 목표를 고려해 전공별로 AI를 접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행정·정책 분야에서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분석, 행정 혁신 교육이 가능하며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AI 기반 콘텐츠 분석과 기획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경기 데이터 분석과 AI 전략 활용 교육을, 약학과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데이터 기반 연구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교육 설계가 가능하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전공 간 연계를 넓히는 동시에 각 학문이 지닌 고유한 전문성을 유지하는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융합형 인재 양성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교원 역량 강화와 교육 인프라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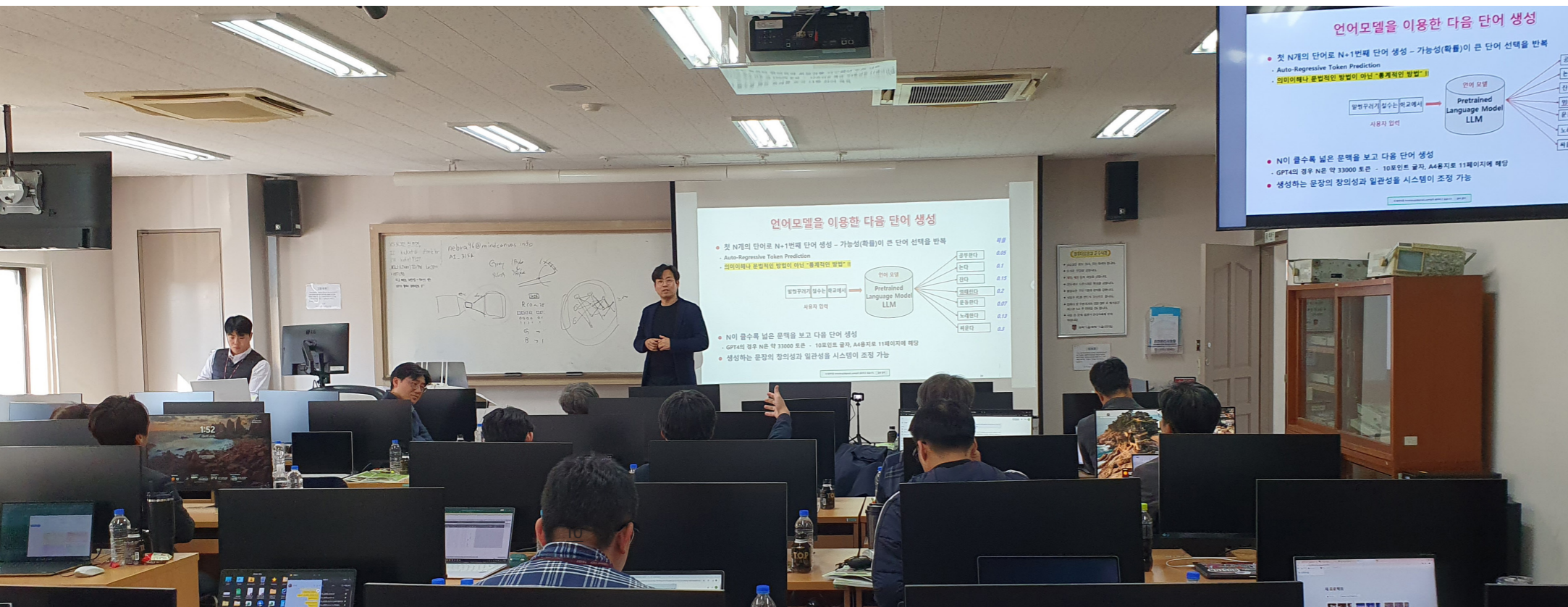
AI/DS 융합교육 특성화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 설계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교원 역량과 교육 환경이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전 교원을 대상으로 AI/DS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수·학습 방법 혁신과 전공 연계 교육 과정 설계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외부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원 교육을 통해 AI 기술 이해와 더불어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실질적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AI/DS 특성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실습 환경을 구축하고 융합교육 운영 학과에 대한 교원 총원 및 학과 특성화 연구비 지원 등을 통해 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 혁신과 교육 혁신의 연계

교육 혁신은 행정 체계의 뒷받침 없이는 지속되기 어렵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AI 융합교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 혁신과 행정 혁신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환경 변화와 대학 운영 여건 변화에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AI 기반 행정 체계 도입은 단순한 업무 효율화에 그치지 않고, 교육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지능 사회를 향한 지속 가능한 교육 혁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AI 융합교육 특성화는 단기적인 사업이나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초지능 사회를 대비한 중장기 교육 혁신 전략의 일환이다. 전 학과 대상 AI/DS 융합교육, 다층적 교육 과정 구조, 교원 행정 역량 강화, 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교육·연구·산학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AI와 데이터를 활용하는 실질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으며, 대학은 지역 산업과 국가 전략 산업에 기여하는 교육·연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초지능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배움을 나누고 혁신을 만든다

교수학습정보센터,
유네스코 ESD 프로젝트 공식 인증 획득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만의 혁신수업 'SEMO Class'가 2025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프로젝트로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지역사회 현안을 탐색하고 학습자의 실천을 중심으로 설계된 수업 모델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 가치를 구현해 왔다는 점에서 대학의 교육 혁신 성과가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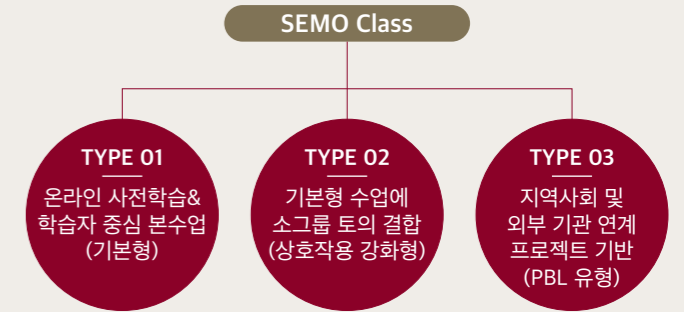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 프로젝트 인증제'는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가 2011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로, 국내외의 우수한 지속가능발전 교육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한국형 ESD 모델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 인증 공모에는 지자체, 대학, 기업 등 총 57개 프로젝트가 접수되었으며 교육적 가치와 지속가능성, 학습자 주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23개 기관의 프로젝트가 최종 인증을 획득했다. 이 가운데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교수학습정보센터의 'SEMO Class 배움 나눔형 수업'이 2025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 프로젝트로 선정되었다.

SEMO Class 배움나눔형 수업

SEMO Class(Student Engaged MOdular Class)는 기존 Flipped Class 방식에서 한 단계 발전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대표적인 혁신수업 모델이다. 사전학습(Pre-Class)을 통해 기본 개념을 익힌 뒤 본수업(In-Class)에서는 토론과 실습, 문제 해결 중심 활동에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설계된 학습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수업 시간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사고 확장과 적용 중심의 학습으로 운영된다.

SEMO Class는 세 가지 운영 유형으로 구성된다. TYPE 01은 온라인 사전학습 이후 학습자 중심의 본수업을 운영하는 기본형으로, 수업 시간에는 토론과 적용 활동을 통해 이해를 심화한다. TYPE 02는 여기에 소그룹 토의를 결합해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TYPE 03은 지역사회 및 외부 기관과 연계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유형으로, 실제 사회 문제를 수업 안으로 끌어와 해결 과정을 학습 흐름 속에 구조화한 것이 특징이다.



SEMO Clas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내에는 'Classroom SEMO'가 구축되어 있다. 2022년 신설된 Classroom SEMO는 미래관 1층에 위치한 최첨단 하이브리드 강의실로, 재학생의 창의적인 학습과 토론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이다. 이 공간에는 독립적인 학습 및 소그룹 토론 공간과 함께 최신 교육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 토론·프로젝트·협업 중심의 SEMO Class 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기여

교수학습정보센터는 이러한 SEMO Class의 교육적 구조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지역사회 현안을 탐색하고 배움을 공유하기 위한 프로젝트 기반 혁신수업인 'SEMO Class 배움나눔형 수업'을 개발·운영해 왔다. 이 수업은 교과 과정 안에서 공동체를 위한 배움의 가치를 실현하고, 학습 경험을 지역사회 실천으로 확장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SEMO Class 배움나눔형 수업에서는 수업을 통해 배운 지식과 역량을 활용해 세종시 초등학교, 다문화 이주민 여성, 어르신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과 소통하며 배움을 나누는 실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학습자이자 실천 주체로서 사회의 필요를 인식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여하는 경험을 쌓았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교육 참여를 넘어, 학습자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경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천적 성과로 평가 받았다.

중장기 비전과 확산 가능성

이번 유네스코 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특화된 혁신수업 모델이 지닌 교육적 효과와 가치를 국제적 전문 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교수학습정보센터는 SEMO Class 배움나눔형 수업 성과를 안정적으로 확산하고, 학습 경험이 지속가능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당 수업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배움 나눔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교육적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며,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배움의 가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내일을 잇다

학술정보원, 유네스코 ESD 프로젝트 공식 인증 획득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운영하는 '세종 청소년 기후행동 멘토링 - 모두를 위한 지구를 말하다' 프로젝트가 2025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프로젝트로 인증을 획득하며 지속가능한 교육 혁신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대학과 지역사회, 그리고 청소년을 잇는 교육 나눔 모델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2025 유네스코 ESD 공식 인증 획득

세종학술정보원은 2019년부터 세종시 청소년 환경 멘토링 프로그램 '모두를 위한 지구를 말하다'를 운영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유네스코 ESD 공식 프로젝트로 인증된 바 있으며, 이후 교수학습정보센터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배움 나눔 프로젝트'로 발전·확대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5년 유네스코 ESD 공식 인증을 다시 한 번 획득하게 되었다.

본 프로젝트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기획한 대표적인 지역 연계 교육 프로그램으로, 청소년과 대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멘토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아 장기간 유네스코 공식 인증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세종시와 협력한 지속가능 교육 모델 구축

2023년 기존 인증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24년 8월, 세종시 교육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만의 혁신수업 모델인 SEMO(Student Engaged MOdular) Class를 이수한 대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하여, 세종청소년기후행동협의회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과 지역사회 환경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대학생 멘토와 청소년 멘티가 함께 전문적인 환경교육을 이수하고,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실천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지속가능한 교육 모델을 지향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대학이 수행하는 핵심 역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학술 및 연구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고, 세종시 인재평생교육원과 함께 '세종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학술적 깊이를 강화하기 위해 교수학습정보센터와 협력하여, SEMO Class 과정을 이수한 재학생을 중심으로 멘토단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대학이 학술정보의 허브이자 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의 구심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멘토링 과정에서 대학생 멘토와 청소년 멘티는 지역사회의 환경 및 기후 문제를 함께 탐구하고, 학술자료를 활용한 연구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2월, '2024-2025 세종특별자치시 기후행동보고서(The Green)'를 발간하여 지역사회에 배포하였으며, 세종시 습지 생태 조사와 기후행동 캠페인 등 다양한 실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 혁신과 사회적 가치 실현

본 프로젝트는 지속가능발전교육 관점에서 교육 혁신 효과가 매우 크다. 대학이 보유한 양질의 교육 인프라와 연구 역량을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시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와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미래세대인 대학생과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멘토링 방식은 지식 공유와 연구, 토론, 실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지식 전파와 세대 간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기후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생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은 대학생과 청소년이 공동체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구 환경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문지식의 전파(Knowledge Transfer)와 세대 간 협력(Partnership)을 실현하며,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함께 탐구하는 협력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멘토로서의 리더십과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고, 청소년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와 실천 의지를 높이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장기 비전과 확산 가능성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실천 주도형 멘토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2025 세종특별자치시 기후행동보고서 발간, 습지 생태 조사, 기후행동 캠페인 등 다양한 성과는 이러한 비전이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지역 공동체의 환경의식 향상과 청소년 주도의 기후행동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앞으로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가치를 실천하며,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교육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번 유네스코 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은 그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이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있다.

전자및정보공학과 김성훈 교수 연구팀



자기장 하나로 치료·추적·제어 통합 가능한 테라노스틱스 마이크로로봇 플랫폼 개발



전자및정보공학과 김성훈 교수



원광대학교 화학융합공학과 kwaksojeong 교수



전자및정보공학과 송원일 박사과정



광전자신소재연구소 Armando Ramos-Sebastian 박사



전자및정보공학과 이자성 박사과정



전자및정보공학과 지동민 박사과정

생명정보공학과 백승필 교수

전자및정보공학과 김성훈 교수(교신저자) 연구팀이 자기입자영상(Magnetic Particle Imaging, MP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올인원 전자기 테라노스틱스 마이크로로봇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본 연구는 고가의 의료영상 장비 없이도 마이크로로봇의 정밀한 위치 추적과 이동, 자극, 세포 및 약물 전달을 하나의 자기장 시스템으로 통합 제어할 수 있는 기술로, 차세대 의료 로봇 및 정밀 치료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구 성과는 제조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Extreme Manufacturing (IF 21.3) 2025년 7월호에 온라인 게재되었다.

기존 의료용 마이크로로봇 기술은 CT, X-ray, 광학 카메라 등 외부 영상 장비에 의존해 위치를 추적해야 했으며, 이로 인한 방사선 노출과 높은 비용이 주요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 제안된 플랫폼은 MPI 신호만을 활용해 자성 물질의 농도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정량 추적할 수 있어, 환자 안전성과 진단·치료의 정밀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

김성훈 교수 연구팀은 생체적합성이 우수한 알지네이트 하이드로겔에 초상자성 나노플라워(iron oxide nanoflowers)와 NdFeB 자성입자를 복합 삽입해, MPI 신호 검출, 고정밀 위치 제어, 열 발생 제어, 세포 및 약물 전달 기능을 모두 갖춘 다기능성 소프트 마이크로로봇을 제작했다. 특히 다중 자성 나노입자를 활용한 최적 제조 공정을 제시함으로써, 하나의 로봇에서 멀티모달 기능을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개발된 마이크로로봇은 실제 혈류 환경을 모사한 3차원 유동 시스템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며, 목표 지점에 정확히 도달해 세포를 전달하고 생장을 유도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다중 마이크로로봇 간의 선택적 제어 기술을 구현해, 특정 로봇에만 국소적인 자성 열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정밀 온열 자극 기술을 실험적으로 검증했다. 이를 통해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선택적 치료가 가능함을 입증했다.

김성훈 교수는 "본 연구는 위치 추적, 이동, 치료, 전달을 하나의 자기장 시스템으로 통합한 세계 최초의 자성 기반 올인원 테라노스틱스 플랫폼"이라며, "향후 장기 생체실험과 동물 모델 연구를 통해 실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고려대학교 연구지원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NRF-2022R1A2C1003381).

전자·정보공학과 서성규 교수 공동연구팀



Cellytics® NK로 면역저하 환자 NK세포 특성 최초 규명



전자·정보공학과 서성규 교수



생명정보공학과 전현식 교수

전자·정보공학과 서성규 교수와 생명정보공학과 전현식 교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혈액내과 김병수·강가원 교수, 진단검사의학과 남명현 교수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이 'Cellytics® NK' 플랫폼을 활용해 혈액암 및 골수이식 환자 등 면역저하 환자의 NK(Natural Killer) 세포 특성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본 연구는 임상 현장에서 환자의 면역 상태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을 제시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 결과는 국제 저명 학술지 Sensors and Actuators B: Chemical (IF 7.7) 8월 31일자에 게재되었다.

Cellytics® NK는 (주)메타이뮤텍이 개발한 홀로그래픽 세포 분석 플랫폼으로, 환자 혈액에서 NK 세포를 손상 없이 신속히 분리해 세포 수, 활성도, 기능적 특성을 동시에 정량 분석할 수 있다. 기존 NK 세포 기능 평가는 절차가 복잡하고 분석 시간이 길어 임상 적용에 한계가 있었으나, 본 플랫폼은 렌즈프리 그림자 이미징 기술(LSIT)을 기반으로 실시간 면역 상태 측정을 가능하게 했다.

연구팀은 해당 플랫폼을 활용해 무균실 치료를 받는 혈액암 및 골수이식 환자의 NK 세포 활성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특히 세포 홀로그램에서 추출한 PPD, WSM-SD, CSP 등의 독창적 지표와 새롭게 정의한 선천면역지수(I³)를 통해 건강인과 면역저하 환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 중 핵심 지표인 CSP는 AUC 0.95 이상의 높은 진단 성능을 보여, 환자 맞춤형 면역 프로파일링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암 치료, 감염병 대응, 개인 맞춤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자의 면역 상태를 빠르게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향후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해 다양한 환자군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임상적 활용 가치를 더욱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서성규 교수는 "전자공학과 면역학을 융합해 임상 현장에서 면역 세포를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으며, 전현식 교수는 "Cellytics® NK 플랫폼은 분석 속도와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켜 환자 맞춤형 면역치료와 연구에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대학ICT연구센터(ITRC) 사업,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산연구장비경쟁력강화사업,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차세대의료기기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전자·정보공학과 황한정 교수 공동연구팀

뇌졸중 환자 맞춤형 뇌전기자극 최적화 AI 기술 개발



전자·정보공학과 황한정 교수

전자·정보공학과 황한정 교수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김원석 교수, 한림대학교 최가영 교수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이 뇌졸중 환자의 맞춤형 재활치료를 인공지능으로 자동화해 치료 효율을 최대 82%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 본 기술은 전문 의료진의 지속적인 개입 없이도 환자 스스로 가정에서 재활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접근으로, 비대면·홈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신경공학 및 재활 분야의 국제 학술지 Journal of Neuro Engineering and Rehabilitation(Impact Factor 5.2, 재활 분야 상위 2%)에 게재되었으며, 논문명은 Clinical Feasibility of Motor Hotspot Localization Based on Electroencephalography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in Stroke이다.

최근 미세 전류를 활용해 질병을 치료하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전자약(electroceutical) 기술이 차세대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중 경두개전기자극(transcranial electrical stimulation, tES)은 두피에 약한 전류를 흘려 뇌 신경 활동을 조절하는 비침습적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 tES는 뇌졸중으로 인한 운동기능 저하나 정신질환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돼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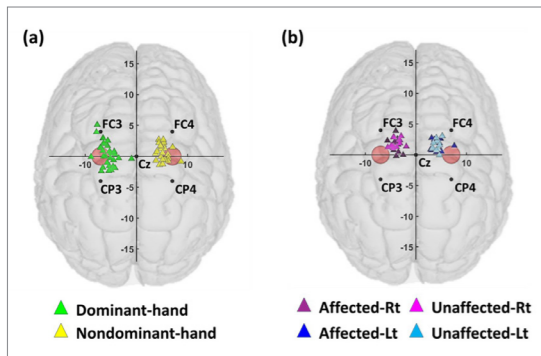
그러나 기존 tES 치료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자극 위치를 전문가의 경험에 의존해 결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절차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접근성을 낮추고 치료 순응도와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별 뇌파(EEG) 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전기자극 위치를 자동으로 탐색하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 연구에서 전문가의 고도화된 신호처리와 해석이 필요했던 뇌신호 분석 과정을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개선했으며, 별도의 데이터 가공 없이 원시 뇌파(raw EEG data)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기존 대비 최대 82%의 성능 향상을 달성했다.

해당 기술은 환자와 보호자가 전문 인력의 도움 없이도 가정에서 뇌전기자극 기반 재활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뇌졸중 환자의 재활 효율과 치료 순응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대면·홈 기반 치료 활성화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의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황한정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는 일상생활에서도 활용 가능한 뇌전기자극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전자약의 원천기술로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 연구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고도화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대학ICT연구센터사업, 한국연구재단 뇌과학선도융합기술개발사업·STEAM연구사업·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육성사업,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생명정보공학과 백승필 교수 연구팀

규조토 여과 기반 저비용·고효율 미세조류 바이오매스 대량수확 기술 개발



생명정보공학과 백승필 교수

생명정보공학과 백승필 교수(교신저자)와 자연과학연구소 윤효직 박사(제1저자)로 구성된 연구팀이 규조토(diatomite)를 프리코팅(pre-coating)한 판형 여과 공정(plate and frame filter press)을 적용해 미세조류 바이오매스를 에너지 효율적으로 대량 수확하는 데 성공했다. 본 기술은 최대 5톤 규모의 실증 수확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확인하며, 미세조류 바이오매스 생산 공정의 산업화 가능성을 입증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농업공학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학술지 Bioresource Technology (Impact Factor 9.0)에 「Diatomite coated plate and frame filter press as novel harvest method of microalgae biomass: Design and pilot-scale study」라는 제목으로 2025년 10월 최종 출판되었다.

미세조류는 차세대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전체 생산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확 공정은 상용화의 가장 큰 기술적 병목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연구팀은 판형 여과 장치에 규조토를 프리코팅하는 방식을 적용해, 미세조류 세포의 포획 효율과 탈수 성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공정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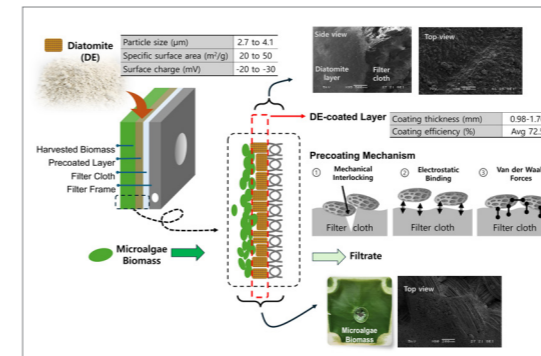
연구팀은 실험실 규모와 실증 규모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공정 성능을 검증했다. 최적 프리코팅 범위는 약 250-500 mg/L로 확인됐으며, 해당 조건에서 수확 효율은 15-20%p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과 케이크는 안정적으로 형성돼 오염 저감과 투과유속 유지에 유리했으며, 에너지 사용량은 2.5-3.0 kWh/m³ 수준으로 측정돼 기존 원심분리 공정 대비 에너지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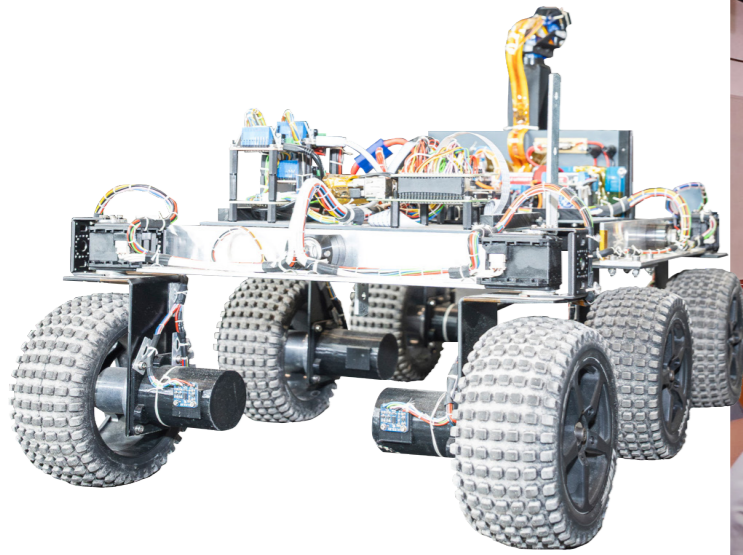
본 공정에는 총 여과면적 1.44 m²의 플레이트와 폴리프로필렌-폴리에틸렌-폴리비닐알코올 복합 여과천(두께 약 200 μm, 공극 5 μm)이 적용됐다. 한 사이클은 배양액 주입과 케이크 압착 단계로 구성되며, 여과천 표면에는 평균 0.85-1.76 mm 두께의 규조토층이 형성돼 약 5-20 μm 크기의 미세조류 세포를 포집했다. 또한 표면 전하와 미세구조에 기반한 상호작용을 통해 코팅층의 안정성도 확보됐다.

경제성 평가 결과, 규조토 프리코팅 여과 공정은 원심분리 및 막여과 공정 대비 장비 비용을 연간 약 30%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였으며, 에너지 비용 역시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약 80%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프리코팅 1회로 2-3일 연속 운전이 가능하고 재코팅만으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장점이 확인됐다.

백승필 교수는 “규조토는 천연 기원 물질로 다공성 구조와 넓은 비표면적을 지녀 미세입자 포획에 유리하다”며, “규조토 프리코팅 여과 공정은 합성 화학첨가제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수확과 탈수를 동시에 달성해 미세조류 기반 바이오매스 상용화의 핵심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Carbon to X(CtX) 기술개발사업과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연구를 선도하다

InnovationCampus Future Mobility(ICM)를 만나다

ICM은 2019년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Karlsruhe Institute of Technology(KIT)와 University of Stuttgart(USTUTT)가 공동 설립한 연구 협력 플랫폼이다. 제조 시스템, 모빌리티 기술, 소프트웨어 시스템 아키텍처를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으며, 전 세계 대학·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는 물론 EU Horizon 프로그램 등 국제 연구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ICM의 Managing Director인 Dr.-Ing. Max Hoßfeld와 함께 연구 방향 및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의 교류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ICM에 대해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InnovationCampus Future Mobility(ICM)는 지속 가능하고 무공해적인 미래 모빌리티를 목표로 설립된 연구·혁신 플랫폼입니다. 연구기관, 산업 파트너, 공공 부문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모빌리티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ICM의 연구는 여러 전공 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제조 시스템, 모빌리티 기술,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아키텍처가 주요 연구 분야입니다. 연구 결과가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와 산업 현장의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ICM이 생각하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미래 모빌리티 연구에 대한 관심이 분명하고, 도시 및 정부 기관과의 연계가 활발하며 국제 교류에도 적극

적인 대학입니다. 공학, 정책, 도시계획을 함께 다루는 접근 방식은 모빌리티를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ICM의 연구 방향과 잘 맞습니다.

특히 세종시와의 협력 속에서 모빌리티 관련 연구가 실제 도시 환경에서 적용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연구자들이 단순히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해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가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ICM이 중요하게 여기는 현장 중심 연구 방식과도 닮아 있습니다.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했는데 향후 어떤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이번 협약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고려대 세종캠퍼스와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기관은 모빌리티를 기술적인 영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도시와 사회 전반의 변화와 함께 바라본다는 점에서 공통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축적된 시스템 중심의 모빌리티 연구 경험과 한국의 빠른 실행력, 디지털 기술 활용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축적된 경험을 비교하고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교류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기반 도시 환경에 대한 경험과, 계획도시로 발전해 온 세종시의 특성, 그리고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이 가진 산업과 공학 분야의 경험이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공동 연구와 연구자 교류, 단계적인 협력 활동을 이어 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 및 연구자들의 교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학생과 연구자 교류는 제도적인 협약 그 이상으로 실제 연구와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류를 통해 학생과 초기 연구자들은 다른 나라의 연구 환경과 학문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고, 공동 연구나 논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이러한 교류는 단기간의 프로젝트를 넘어 유럽과 한국을 잇는 연구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인 교류와 신뢰 관계는 이후의 협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 직접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의 방문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앞으로 함께 논의할 연구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캠퍼스를 직접 둘러보며 학생과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생활하는 환경을 살펴볼 수 있었던 점이 의미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향후 연구 주제의 방향을 정리하고 공동 연구 과제와 학생·연구자 교류, 파일럿 프로젝트 등 후속 활동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은 양 기관 간의 관계를 이어 가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학생 중심 교육의 혁신 모델을 써 내려가다

네덜란드 HZ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를 만나다

HZ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HZ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HZ)는 1987년에 개교한 네덜란드 응용과학대학으로, 수년간 네덜란드 내 중·대형 응용과학대학 가운데 상위권을 유지해 온 교육기관이다. 플리싱언과 미델뷔르흐 두 도시를 기반으로 한 HZ는 개인별 맞춤형 소규모 교육과 실무 연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현실의 문제를 직접 마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HZ의 교육 철학과 주요 프로그램, 그리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의 교류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기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HZ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에 대해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HZ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HZ)는 네덜란드 정부의 공식 인증을 받은 응용과학대학으로, 약 4,9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중규모 대학입니다. 이 가운데 약 700명은 해외에서 온 유학생으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며 국제적인 학습 환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HZ의 캠퍼스는 네덜란드 남서부 델타 지역에 위치한 플리싱언(Missingen)과 미델뷔르흐(Middelburg)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파리, 브뤼셀, 쾰른 등 유럽 주요 도시까지 기차로 3~5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캠퍼스 인근에는 학생 숙소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 생활 환경 또한 매우 편리합니다.

HZ의 주요 교육 내용과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나요?

HZ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학생 중심 교육'입니다. 모든 학생은 담당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소규모 수업을 통해 학생 개개인이 존중받는 학습 경험



을 할 수 있습니다. 교수 연구실이 강의실과 같은 복도에 위치해 있고, 대부분의 교수들이 열린 공간에서 학생들과 자유롭게 소통한다는 점도 HZ의 큰 특징입니다.

HZ의 교육은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기업, 정부, 기관과 협력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습니다. 또한 교육과 응용 연구가 분리되지 않아, 최신 연구 주제가 수업에 반영되고 학생들은 실제 연구 현장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수자원 관리, 지속가능 에너지, 지역 활력, 기후 적응 등 현실적이고 시급한 사회·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며, 특히 델타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살려 해안 방재, 홍수 관리, 생태 복원, 연안 안전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HZ를 하나의 '리빙 랩(Living Lab)'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HZ의 위치, 학습 환경의 장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플리싱언 캠퍼스는 네덜란드 해안과 인접해 있으며, 미델뷔르흐 캠퍼스는 중세 도시의 분위기가 살아 있는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질란트 지역에서 생활하면서도, 주말에는 암스테르담을 포함한 네덜란드 주요 도시를 직통 열차로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분위기는 편안하고 개방적이며, 교수와 학생 간의 소통이 매우 자유롭습니다. 모든 교환 학생에게는 개인 코치가 배정되어 학업과 생활 전반을 지원하며, 유학생 기숙사 역시 캠퍼스 인근에 위치해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시설의 수준이 높고, 교재를 별도로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대학생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요?

HZ는 HZ-Sport를 통해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 스포츠 클럽과의 연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HZ-Community를 중심으로 국제학생과 교환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HZ Green Office, Student Community Center, HZ Cult(ure) 등 다양한 조직을 통해 문화·환경·커뮤니티 활동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캠퍼스 안팎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특히 봄 학기에는 공휴일과 긴 연휴가 많아 학업과 여행을 병행하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HZ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유지해 온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려대에 대한 세계적 평가와 우수한 교육 수준, 그리고 다양한 영어 강좌 제공은 파트너십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또한 양교 간 전공 유사성이 높아 학생 교류가 원활하다는 점 역시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안전한 환경,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문화가 큰 매력으로 작용하며 특히 세종캠퍼스는 한국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아 한국 문화를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 다녀온 학생들의 전반적인 소감은 어땠나요?

학생들은 스포츠 시설, 축제, 동아리 활동,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다양한 캠퍼스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과 캠퍼스 구성원들의 친절함이 기억에 남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세종캠퍼스에서의 경험은 많은 학생들에게 오래도록 남을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지원 강화로 글로벌 캠퍼스 도약 가속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화교류, 학업지원, 생활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교육·체험·상담·교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유학생들의 정서적·문화적 적응을 돕는 한편, 학습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나아가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소속감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캠퍼스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교류 분야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학기당 3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는 물론 현대 예술과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 문화를 폭넓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5학년도에는 3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과학관 등을 방문하였으며 본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KUS Tigers 멜팅팟 프로그램'을 통해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소통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학기별 1회 진행되는 해당 프로그램은 다양한 테마의 퀴즈 문제를 팀 단위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문제 풀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팀워크를 형성하고 내외국인 학생 간 교류와 소속감을 강화한다. 퀴즈는 K-POP, K-드라마, 유네스코 문화유



산 등 글로벌 문화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학사 관련 정보를 포함해 참여 학생들의 지식 함양에도 기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업지원 분야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5-1 외국인 유학생 TOPIK 프로그램'이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방학 기간을 활용해 레벨 테스트를 실시하고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해 수준별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체계적인 단계별 학습을 통해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학업 수행 능력 강화와 졸업률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생활지원 분야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신입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별 1회 운영되는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법률·의료·생활 전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이 세종시와 한국 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도록 돕고, 대학과 지자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유학생 친화적 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국가의 유학생들이 지역사회 및 타국 학생들과 교류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의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다문화 공존 분위기 확산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아울러 학기 중 점심시간을 활용한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글로벌 한상 토크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해당 프로그램은 유학생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FGI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학업과 생활 적응을 보다 수월하게 지원한다. 소그룹 대화와 개별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한편,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와 학생 간의 실질적인 소통 강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더하여 외국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Global Crimson Day'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교내 유학생 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유학생들이 캠퍼스에 대한 소속감과 긍정적 경험을 공유하고, 학기 동안의 학교 생활 경험과 어려움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정서적 스트레스 완화와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이와 같은 다각적인 외국인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캠퍼스 환경을 강화하고, 유학생들이 학업과 생활 전반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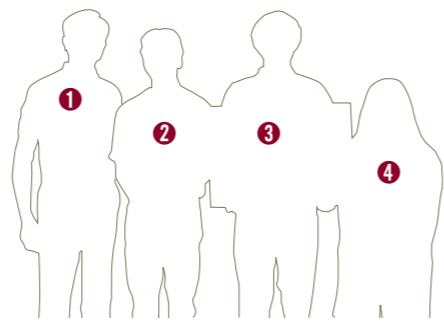




귀로 듣는 영화관, 하이엔드 오디오의 진입장벽을 허무는 헤드폰을 만들다

스타트업 동아리 FlatSoul

하이엔드 오디오는 오랫동안 '소수의 취미'로 여겨져 왔다. 극저음의 깊이와 공간감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초고가의 헤드폰과 앰프가 필요했고, 이는 대중에게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이동형 학생(전자및정보공학과 25)은 하드웨어 스타트업 동아리 'FlatSoul(플랫소울)'을 이끌며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영화관 수준의 극저음 몰입감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헤드폰을 목표로, 기술과 집념을 제품으로 구현해 나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 ① 서정남 세종시 창업벤처팀장
- ② 김도윤(전자및정보공학과 25)
- ③ 이동형 대표(전자및정보공학과 25)
- ④ 유자인(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영상편집제작학과 22)

FlatSoul

'FlatSoul'은 어떤 팀인가요?

FlatSoul은 오디오와 하드웨어에 깊은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기술 기반 창업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지난 9월 '2025 세종 유니온 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최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창업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세종스타트업워크 부스 운영 당시, 관람객들이 직접 시제품을 청음한 뒤 "학생이 만든 소리라고는 믿기 어렵다"라고 말해 주었던 순간은 큰 확신이 되었습니다.

최근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은 진동판 증착 공정에 대해 카이스트 나노융합기술원으로부터 공정 진행 승인을 받으며 상업적으로도 실현 가능한 기술임을 확인했다는 점이 큰 성과로 남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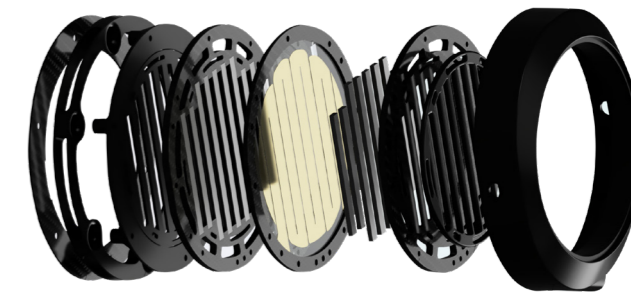
현재 개발 중인 제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FlatSoul은 영화관 수준의 극저음 사운드를 구현하는 하이엔드 헤드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초고가 헤드폰들은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극저역 재생이 어렵고, 성능을 온전히 끌어내기 위해서는 고가의 앰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독자적인 '자유공진 유도형 압력평형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한 헤드폰을 개발 중입니다. 해당 기술은 현재 특허 출원 단계에 있으며, 고효율 구동과 깊은 저역 재생을 동시에 구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복잡한 장비 없이도 영화관 같은 몰입감을 제공하는 헤드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계기는 '우연한 발견'이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개조 작업을 하던 중, 기존 제품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극저음 재생이 가능한 구조적 아이디어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를 나만 들을 수는 없다. 이걸 제품으로 만들면 세상이 놀라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후 커뮤니티에 '극저음 튜닝 가이드'를 작성하였고, 쏟아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며 저만의 헤드폰을 만들기 위해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품을 통한 기대 효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큰 기대 효과는 하이엔드 오디오의 진입 벽을 낮추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러야 경험할 수 있었던 최상급 사운드를, 약 1/4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소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의 탄생이라는 의미도 지닙니다. 현재 국내 하이엔드 헤드폰 시장은 대부분 해외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FlatSoul은 경쟁력 있는 국산 오디오 브랜드로 성장해, 나아가 수출까지 이뤄내는 K-Audio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준비 과정은 어떠했고,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하드웨어 제품 개발은 대학생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영역이었습니다.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지원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비 창업동아리로 선정된 이후 육성반으로 승격되며 충분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메이커스페이스를 활용해 머릿속에 있던 아이디어를 빠르게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한 제품 아이디어를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향후 계획과 목표에 대해 알려주세요.

단기적으로는 군복무 전까지 대중에게 들려줄 수 있는 완성도의 헤드폰 개발을 마무리하고, '청음열차'를 개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후 군복무를 마친 뒤에는 커뮤니티 팬덤을 기반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해 초기 물량을 완판하고, 시장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적 완성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려, 전 세계 오디오파일과 대중 모두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대표 하이엔드 오디오 기술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FlatSoul은 처음 오디오를 사랑하던 덕후의 마음을 잃지 않고, 전 세계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날까지 도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스마트시티를 향한 기술 혁신의 현장

가족회사 ㈜이화네트웍스를 만나다

고려대 세종캠퍼스 창업보육센터는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대학의 연구역량과 지역 산업을 연결하며 혁신 기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ICT 분야의 다양한 기업과 협력하며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2025년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러한 지원 속에서 자율주행 시대의 보행자 안전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화네트웍스는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대표 사례다.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공공과 민간 시장을 아우르는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 중인 ㈜이화네트웍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화네트웍스'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이화네트웍스는 커넥티드카 서비스 플랫폼과 보행자 안전 시스템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시대에 대응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기반의 분산형 차량 플랫폼과 V2X(Vehicle to Everything) 연계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커넥티드 보행자 안전 시스템 '그린사인'을 중심으로 공공 교통 인프라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민간과 공공 시장을 아우르는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와 협력하게 되신 계기는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서 협력을 이뤄 가고 계신가요?

커넥티드 카 플랫폼과 지능형 서비스를 개발하던 당시, 이 기술과 서비스가 스마트시티에 적용하기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에는 AI, ICT, IoT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기술대학 미래모빌리티학과와 스마트도시학부가 있어, 세종 스마트시티에서 시범 사업과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때 학교와 협력하면 좋은 시너지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ACE Club에 Gold 등급의 가족회사로 가입하며 본격적인 협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귀사의 주요 실적 및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의 R&D 과제를 통해 개발한 분산형 차량 플랫폼의 주요 기술을 정보통신산업표준으로 등록하였으며, 2024년 해당 기술을 응용한 커넥티

고속차량접근 경고시스템

커넥티드 보행자 안전 시스템 '그린사인'의 핵심 제품군



이화네트웍스



그린사인은 보행자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전국에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드 보행자 안전 시스템 '그린사인'을 출시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그린사인이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고, 2025년 8월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그린사인 실증 및 운영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표준 제정된 '분산형 차량 플랫폼 상의 보행자 안전 서비스 통신 프로토콜'이 2025년 우수 TTA표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어떤 도움이 되었고, 특히 감사를 전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먼저 ㈜이화네트웍스의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의 협력 방안을 자세히 들어주시고 2024년 초 입주를 위해 도와주신 세종산학협력단 김덕봉 특임교수님과 양인철 주임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산학협력과제 개발에 도움을 주신 김재원 교수님과 그린사인 보안 테스트에 많은 도움을 주신 교수학습정보센터 최지현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그린사인 서비스 고도화와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해 함께 고민해주신 미래모빌리티학과 오시문 교수님과 윤진원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 알려 주세요.

2022년 도로교통공단의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조사를 보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으며 보행노약자의 사망자는 7.7배에 이릅니다. 앞으로 그린사인은 보행자 사고다발구역,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회전교차로 등에서 보행자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그린사인 실증 및 운영 사업 이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진행 협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계기로 세종 스마트시티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니다. 스마트 글라스와 지능형 로봇, 드론 교통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캠퍼스의 풍경은 이제 구현 가능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문화유산 융합학부 고고미술사학과 20학번 김경중 학생은 이러한 상상에서 출발해 '미래를 연결하는 글로벌 KU 세종'을 주제로 한 영상을 제작했다. 세종시의 상징인 세종대왕을 화자로 설정해 과거의 시선으로 미래의 캠퍼스를 바라보게 한 이 작품은 기술과 역사가 공존하는 미래를 친근하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AI 비전 영상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했다. AI로 확장되는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능성을 직접 구현해 낸 김경중 학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로 설정해, 과거의 인물이 미래로 와 변화된 캠퍼스를 바라보는 시선을 담았습니다. 기술과 역사가 공존하는 미래를 보다 친근하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Q. AI 툴을 활용한 영상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여름 방학 동안 학과 학우들과 함께 문화유산을 활용한 AI 영상 제작 소모임을 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수업을 통해 세종시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AI 전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한 학기 동안 AI 툴 활용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패러디 형식의 영상 제작으로 성과를 얻기도 했고, 전공 수업에서는 실제 문화유산 공간을 대상으로 AI 활용 기획과 시현 영상을 제작해보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이번 공모전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Q. 전공과 AI 영상이 어떤 점에서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국가유산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중요한 흐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고종의 어려움이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 복식이나 장신구, 질감과 같은 세부 요소를 AI로 정확히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향후 국가유산 전용 AI 모델이 구축된다면, 문화유산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고학적 지식과 AI 기술의 결합은 문화유산을 소수의 전문 지식이 아닌, 모두의 지식으로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앞으로 어떤 진로로 나아갈 계획이신가요?

졸업 후에는 대학원에 진학해 고고학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학부 과정에서 배운 이론과 연구 방법론을 바탕으로 전공에 더욱 깊이 몰입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전공 연구에만 머무르기보다, SNS나 영상 플랫폼을 활용해 고고학과 문화유산을 AI 영상으로 쉽게 풀어내는 소통 활동도 이어가고 싶습니다. 전공 지식과 기술을 결합해 대중과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연구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대학의 AI 활용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I는 특정 전공자만의 도구가 아니라 모든 학문을 확장시키는 기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공자들도 AI를 통해 자신의 전공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다양한 학과가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적 AI 프로젝트가 더욱 활성화된다면, 전공 간 시너지를 통해 지금보다 훨씬 혁신적인 결과들이 나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AI로 그려 낸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미래
KU Sejong AI 영상 공모전
수상자를 만나다



문화유산융합학부 고고미술사학과 20학번 김경중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유산융합학부 고고미술사학과에 재학 중인 20학번 김경중입니다. 고고학과 미술사, 그리고 ICT 기술을 함께 배우는 학부 특성 속에서 전통 지식과 현대 기술의 조화를 고민하며 공부해 왔고, 졸업을 앞두고 그동안 배운 내용을 실제로 구현해 보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Q.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AI가 접목된 미래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영상입니다. 언어 기반 AI에 머무르지 않고 스마트 글라스, 지능형 로봇, 드론 교통과 배달 시스템이 일상화된 미래 캠퍼스의 모습을 상상해 시각적으로 구현했습니다. 특히 세종시를 상징하는 인물인 세종대왕 캐릭터를 화자



고고학적 지식과 AI 기술의 결합은 문화유산을 소수의 전문 지식이 아닌, 모두의 지식으로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불멸식공, 세대를 잇는 연결의 힘 식품생명공학과 교우회

2004년 설립된 식품생명공학과 교우회는 매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재학생과 졸업생 간 친목을 도모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더하여 전공생의 진로·취업·연구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불멸식공'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네트워크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식품생명공학과 4~5대 교우회장을 역임한 한복경(92) 교수와 현 6대 교우회장을 맡고 있는 류재한(94) 교우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Q. 식품생명공학과 교우회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식품생명공학과는 1988년 신설 이후 지금까지 약 1,5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졸업생들은 식품 산업 전반의 다양한 현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활동해 왔고, 그만큼 자연스럽게 넓은 교우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졸업생들 사이에서는 "졸업 이후에도 학과와의 연결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나오기 시작했고, 재학생들과의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함께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고학번 선배님들과 학과 교수님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교우회 설립이 추진되었고, 교우 간 교류의 장이자 졸업 이후에도 학과와 인연을 이어가는 공동체로 교우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공식 명칭은 '식품생명공학과 교우회'이지만, 교우들 사이에서는 '불멸

식공 교우회'라는 애칭으로 더 친숙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결코 멸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아, 재학생부터 졸업생까지 모두를 하나의 공동체인 '불멸식공인'으로 이해하는 개념입니다.

교우회의 공식적인 설립 시기는 2004년이며, 1대 교우회장으로는 88학번 강개석 교우께서 취임하셨습니다. 이후 매년 정기총회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고, 장학사업과 재학생 멘토링, 교우 간 교류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의 폭을 점차 넓혀 왔습니다.

Q. 교우회는 학과 및 학교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나요?

교우회는 학과 교수님들과의 주기적인 의견 교환, 학생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학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6대 교우회 출범을 계기로 학생회와 교우회 간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면서 재학생과의 소통이 보다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이어져 오던 개강총회와 학과 학술제인 '식공인의 밤'에도 교우회가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해, 재학생들을 축하하고 응원할 계획입니다.

학교 차원에서는 주요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2022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중앙광장 벤치 기부 챌린지를 진행하며 캠퍼스 구성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교우회는 학교와 함께 캠퍼스 문화를 만들어가는 협력 주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Q. 교우회 활동이 선·후배간 거리감을 좁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나요?

졸업생들은 보통 재학 당시 알고 지내던 선·후배 관계를 중심으로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교우회 활동을 통해 88학번부터 25학번까지 폭넓은 세대의 교우들을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확장됩니다. 매년 이어지는 교우회 행사와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졸업생과 재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면서, 세대 간 거리감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교우회의 지원으로 학과 학생회실 리뉴얼이 이루어진 점은 의미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테이블과 의자, 전자레인지, 칠판 등 주요 시설이 정비되면서, 학생들이 편하게 모여 토의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간 지원은 선배들의 응원이 재학생들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사례로, 교우회를 더욱 가깝게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Q. 교우회 활동이 진로·취업·연구에 도움이 된 사례도 있을까요?

교우회는 진로와 취업, 연구 전반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식공인의 밤' 행사에서는 교우 멘토링 특강과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근무 중인 교우들

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생명산업특론' 교과목을 통해 산업체 및 연구기관 종사 교우들이 초청 세미나를 진행하며, 최신 취업 정보와 실제 경험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내 추천이나 수시 채용 정보, 연구 협력과 현장 자문도 교우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 재학 중 배운 전공 지식이 현재의 실무·연구에 어떻게 연결되고 있나요?

재학 중 배운 전공 지식은 현재의 실무와 연구 전반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품화학, 식품생화학, 식품가공학, 식품미생물학과 같은 필수 전공 과목들은 자격증 취득과 현장 실무의 기초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식품가공학은 실험실 규모의 공정을 공장 규모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공정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식품미생물학은 HACCP 인증을 위한 과학적 기준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최근에는 식품 관련 법규와 규제과학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민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전공 지식까지 교육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AI 시대를 대비한 인재 양성에도 학과와 교우회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Q. 식품생명학과 재학생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식품생명공학과는 이미 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종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전공 공부에만 머무르기보다 세상이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 늘 관찰해 보길 바랍니다.

식품은 유행을 타지만 생명공학은 본질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전공 기초를 탄탄히 다지면서 교우회라는 든든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지평을 넓히길 바랍니다. '불멸식공'이라는 이름처럼, 교우회는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공동체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Photo KU

사진으로 보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2025 동연제 - 波瀾萬丈 파란만장

11월 6일(목), 동문 테니스장에서 2025 동연제를 개최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낮 부스에서는 보드게임, 전통 차집, 연등 만들기, 캐리커처 등 다양한 동아리에서 준비한 특색있는 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다.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의 밤 부스가 운영되었으며 △UDF △소리마당 △캐스팅 △비트앤소울 △무단외박 △루터스 등 다양한 동아리에서 준비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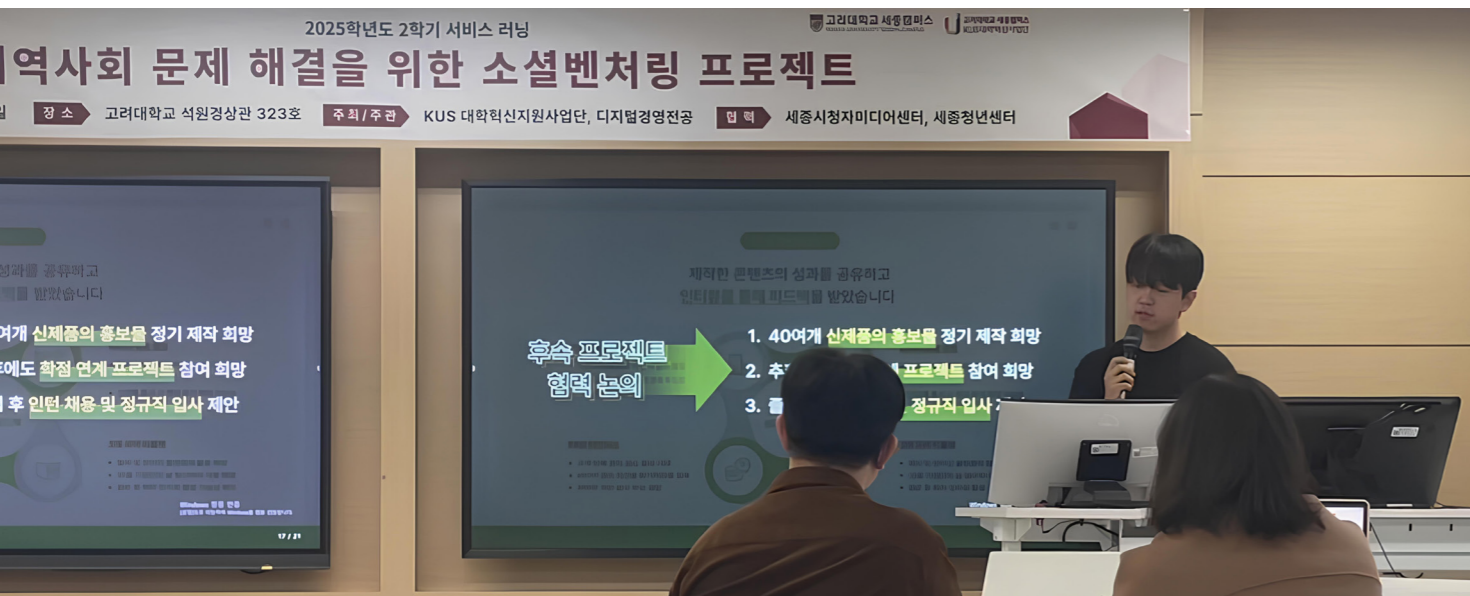
2026 정시박람회

12월 18일(목)부터 20일(토)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 참가해 정시 입시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수험생과 학부모, 고교 교사 등에게 대입 및 진로·진학 정보 중심의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배움으로 세상을 잇다

서비스러닝 교과목이 만드는 함께하는 세상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실천적 교육 강화를 위해 서비스러닝(Service Learning) 교과목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다. 서비스러닝은 학생들이 전공 지식을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적용하고, 그 경험을 다시 학문적으로 성찰하는 교육 모델로,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체계적인 교과 운영을 통해 실무 역량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함께 성장하는 대학과 지역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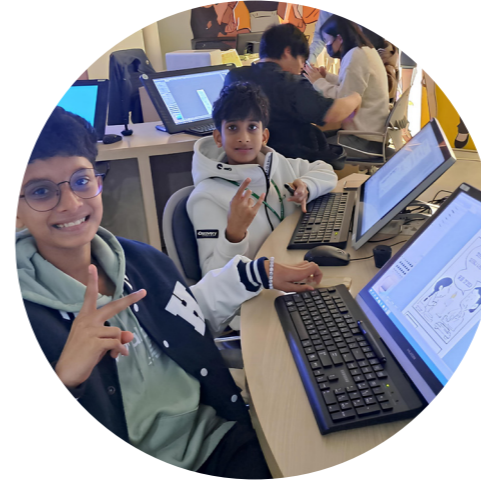
서비스러닝 교과목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실천적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문제 해결 역량과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강의실 안에서 습득한 전공 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 보고, 그 과정에서 이론과 실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이러한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러닝 교과목 운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비스러닝 교과목 운영 현황

현재는 총 4개의 전공 교과목이 서비스러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먼저 글로벌학부 중국학전공에서는 '중국학과 지역사회: 다문화가정과

의 상생 실천' 과목을 개설하여 11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해당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세종시 가족센터 다문화자녀 교육지원사업 자원 봉사과 이주노동자복지센터 중도입국 청소년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실천적 학습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전공 지식을 현장에 적용하는 동시에,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 역량을 함께 키워 나가고 있다.

또한 융합경영학부 디지털경영전공의 '소셜벤처링' 과목에서는 21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세종시 소재 3개 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학생들은 지역 기업과 협력하여 로컬 플랫폼 제작, 카드뉴스 및 영상 콘텐츠 제작 등 실무 중심의 과제를 진행하였으며 조치원역 활성화 전략 수립과 관련된 리플릿 제작, 영상 송출, 안내방송 기획 등 실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에게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역량



을 기르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

경제통계학부 경제정책학전공의 '지역환경과 지속가능한 성장' 과목은 8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방문 및 현장 학습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학생들은 지역 환경 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경험을 쌓았다. 이를 통해 전공 지식을 현실 문제에 적용하는 실천적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

정부행정학부의 '행정과 리더십' 과목에서는 11명의 학생이 세종시 반곡중학교를 방문하여 리더십을 주제로 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학생들은 중학생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며 리더십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달하였고, 교육 현장과의 연계를 통해 공공행정 분야의 실제적 역할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처럼 한 학기 동안 총 55명의 학생이 8개 지역 기관 및 기업과 협력하여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러닝 활동에 참여하였다.

서비스러닝 프로그램의 의의

서비스러닝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무학사팀은 서비스러닝 수기공모전을 진행하여 총 6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참가 학생 대부분이 자신의 성장과 경험 증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학생들은 수기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 과정에서 얻은 배움과 변화, 그리고 개인적 성찰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이는 서비스러닝이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학습과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서비스러닝은 이론 중심의 전통적인 학습 방식을 넘어 실제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 속에서 전공 지식을 활용하고, 현장 경험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교육 방식과 차별화된다. 또한 학습과 봉사를 결합한 통합적 교육 모델을 통해 학생들은 문제 해결 능력을 자연스럽게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내면화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실천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서비스러닝 프로그램의 기대효과

학생과 지역사회가 얻는 기대효과 역시 매우 크다. 학생들은 전공 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며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폭넓은 시각과 경험을 쌓을 수 있다. 한편 지역사회는 대학이 보유한 인적·지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신뢰를 높이고, 상생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된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서비스러닝은 단순한 교과목 운영을 넘어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서비스러닝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더 많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실천적 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학 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모범적인 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 속에서 전공 지식을 활용하고 현장 경험을 확대할 수 있다.

KUS TODAY



글로벌랩 사업 선정으로 '글로벌랩 방산기술보호 연구소' 개소 및 공군사관학교와 협력 체결

01

10월 24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글로벌랩(Global Lab) 사업 컨소시엄형에 선정되어 국민대학교, 강원대학교와 함께 '글로벌랩 방산기술보호연구소'를 공식 개소했다. 이번 연구소는 무기체계 보호, 첨단 방위 사이버보안, K-RMF 연구와 학문 후속세대 양성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며,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엣지클라우드데이터보안연구센터와 지자체·유관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 방위 사이버보안 교육과 연구를 선도할 계획이다. 이번 성과는 한국연구재단 글로벌랩 사업과 과기정통부 IITP의 '대학ICT연구센터(ITRC)'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02

텐센트 글로벌 정책 총괄대표 Danny Marti 초청 특강 개최

11월 5일, 농심국제관 106호에서 텐센트(Tencent) 공공관계 및 글로벌 정책 총괄대표 대니 마티(Danny Marti)를 초청해 '혁신을 엮다: 텐센트의 공공정책과 리더십'을 주제로 특강이 개최됐다. 이번 특강은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재학생들의 진로 역량 강화와 글로벌 테크 기업의 공공정책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텐센트 기업 소개와 공공정책 방향, 글로벌 리더십 사례 및 진로 조언을 중심으로 노수연 중국학전공 교수와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제3회 고려대 공공정책대학-충청권 연구기관 공동포럼 개최

03

공공정책대학은 11월 12일 공공정책관 409호에서 제3회 충청권 연구기관-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AI와 함께하는 기후변화 대응전략-AI 활용과 지역재생에너지 육성 방안'을 주제로, 충청권 주요 국책연구기관의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양지운 세종부총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AI 활용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및 지역 재생에너지 육성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04

세종산학협력단, 전국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 우수 BI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세종산학협력단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25년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며 11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창업보육센터의 보육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로, 세종산학협력단은 기술 기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기술컨설팅·지식재산권·글로벌 진출을 아우르는 성장 지원 체계를 운영해 최근 2년간 사업화 지원 실적과 입주기업의 매출·고용·수출 증가 등에서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권역 단위 창업 협력 모델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05

2025 세종 산·학혁신포럼 개최

12월 4일, 세종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2025 세종 산·학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RISE 원년을 맞아 세종RISE사업단을 비롯한 교육·연구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세종시·혁신기관·지역 기업·고려대 가족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RISE사업의 성공적 추진 전략과 산·학·관 협력을 통한 지역 혁신 방향을 논의했으며, 업무협약 체결과 기업지원 프로그램 소개, 가족회사 간 협업 논의를 통해 세종 지역 혁신 생태계 강화를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제9회 자랑스러운 고대 세종인상 시상식 개최

07

12월 12일, '제1회 KUS 고대인의 밤' 행사와 연계해 제9회 '자랑스러운 고대 세종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수상자로는 경영학과 84학번 동기회와 N.A.W.A 서영호 대표가 선정됐다. 경영학과 84학번 동기회는 장학기금 조성 및 지속적인 후배 지원을 통해 모교 발전에 기여해 왔고, 서영호 교수는 교내 창업동아리에서 출발해 국내외 성과를 이룬 청년 창업가로 성장한 공로를 인정받아 자랑스러운 고대 세종인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고대 세종인상'은 고려대 세종캠퍼스의 발전과 대내외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한 분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고려대 세종캠퍼스 세종산학협력단-영국교통부 차량인증국 한국지사, '미래모빌리티 글로벌 인증 지원센터' 개소

06

세종RISE사업단과 세종산학협력단 주관으로 12월 5일 산학협력관 619호에서 영국교통부 차량인증국 한국지사(VCA Korea)와 함께 '미래모빌리티 글로벌 인증지원센터' 개소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고려대 세종캠퍼스 내에 글로벌 인증지원센터를 공동 구축·운영하며, 세종 지역 미래모빌리티 기업의 유럽·영국 형식승인과 국제 기술 인증을 지원하고 RISE사업 및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한 기술사업화와 R&D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08

문화유산융합학부 최종택 교수, 제 31대 한국고고학회 회장 취임

문화유산융합학부 최종택 교수가 제31대 한국고고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최 교수는 40여 년간 학회 활동을 이어 온 고고학 연구자로서, 창립 50주년을 맞은 학회의 성과를 계승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학회의 정체성 재정립과 미래 비전 구체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으며, 사단법인화와 상설 사무국 설치, 회원 소통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디지털·AI 기반 연구 도구 활용 확대,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학술 역량 강화와 교육 정상화, 그리고 학문 분야 간 균형 발전과 남북 교류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학회 운영과 연구 영역의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천원의 아침밥'에 농협 햅쌀 1,800kg 더해진다

NH농협은행
세종본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천원의 아침밥' 운영을 위해 NH농협은행 세종본부로부터 햅쌀 1,800kg의 지원을 받았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 식사를 거르기 쉬운 대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한 끼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학생 복지 프로그램이다. 2025학년도 2학기에는 9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6주간(월~금, 공휴일 제외 총 75일) 진리관 1층 학생식당에서 운영되었다.

양지운 세종부총장은 "지역 금융기관의 따뜻한 지원이 학생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구로 이어진 뜻, 세종에서 피어나다

정균화 명예교수
연구기금 약정식 및
수여식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지난 9월 23일 석원경상관 105호 강수돌라운지에서 '정균화 연구기금 약정식 및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균화 명예교수를 비롯해 강판목·박정필·조영균·이동한 교수, 정규언 글로벌비즈니스대학장, 이병희 학생복지처장과 글로벌경영전공 교수들이 참석했다.

정균화 장학기금은 총 1억7천만 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이 중 1억 1천만 원은 장학금으로 집행됐다. 이후 남은 금액이 연구기금으로 전환되고 교수들의 추가 기부가 이어지며, 최종적으로 총 2억 4천만 원의 '정균화 연구기금'이 조성되었다.

해당 연구기금은 젊은 연구자들의 학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특히 국제저명학술지에 게재되는 연구에는 사사표기를 통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연구기금의 취지가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첫 번째 연구기금 수혜자로는 양희태 글로벌경영전공 교수가 선정됐다. 연구기금은 교내 신입교원 연구비에 더해 학기당 5백만 원씩 2학기에 걸쳐 총 1천만 원이 지원되며, 이를 통해 신진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 활동과 학문적 성과의 국제적 확산이 기대된다.



기억을 앓히다

95학번 돌벤치 제막식

대외교류팀은 지난 10월 21일, 95학번 입학 30주년을 기념하는 돌벤치 제막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95학번 교수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벤치 기부 캠페인과 기부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발전기금 잠재 기부자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는 행정관 제1회의실과 행정관 뒤편 돌벤치, 세종캠퍼스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총 16명이 참석했다.

본교에서는 양지운 세종부총장을 비롯해 최보승 교학처장, 김정학 입학홍보국 제처장, 이병희 학생복지처장 등 주요 보직자 4명이 함께했다. 이에 95학번 교우 이원병 모교방문축제 준비위원장(통계학과), 임완성 모교방문축제 세종캠퍼스 대표(사회학과), 김응주 모교방문축제 사무총장(수학과) 등 총 12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돌벤치 제막식은 캠퍼스에 남는 기념물을 통해 95학번 교수들의 모교 사랑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자리로, 향후 기부 문화 확산과 발전기금 조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움을 잇는 동행

고려대학교 직원장학회

고려대학교 직원장학회는 1989년 7월 13일, 고려대학교 직원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장학 단체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함 없이 학업 의지가 투철한 고려대학교 재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시작되었으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학생 지원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현재 직원장학회에는 서울과 세종캠퍼스를 포함해 약 300명의 직원이 가입해 있으며, 이 가운데 세종캠퍼스 소속 직원은 57명이다. 직원장학회는 2024학년도 2학기까지 총 319명의 고려대학교 학생에게 약 4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가정형편으로 인해 학업 지속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왔다.

장학금은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직원장학회가 각 단과대학에 추천을 의뢰하면, 단과대학에서 학생을 선정해 장학금 신청서와 학장 추천서를 제출하고, 이후 직원장학회의 확인과 검토를 거쳐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금은 1인당 학기 수업료의 반액을 기준으로 하며, 세종캠퍼스의 경우 매년 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다.

직원장학회의 활동에는 구성원들의 따뜻한 뜻이 담긴 의미 있는 계기도 존재한다. 1992년, 순직하신故 김용근 선생(당시 인사과 근무)의 일기장에 적힌 “나처럼 불우한 후배 학생들을 돕지 못해 안타깝다”는 글을 계기로, 부인 박소연 여사께서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당시 거금인 1,000만 원을 기부하며 장학회의 취지에 힘을 보탰다.

직원장학회는 어려운 가정환경이 학생들의 꿈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응원하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회원 유지와 기부금 확대를 통해 고려대학교 재학생들의 꿈을 꾸준히 응원하며, 장학 지원의 의미를 이어 갈 계획이다.



제1회 KUS 고대인의 밤 행사 개최

대외교류팀은 지난 11월 28일, 고려대학교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제1회 KUS 고대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종캠퍼스 교우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모교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 양지운 세종부총장, 한운상 교우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대학 및 교우회 관계자 20여 명과 교우 130여 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의 주제는 '빛나는 여정을 향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첫 발걸음'으로, '첫 시작'을 상징하는 제1회 행사 취지에 맞춰 구성됐다.

행사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제1회 KUS 고대인의 밤 기념 영상 상영, 참석자 소개, 김동원 총장의 환영사와 교우회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발표된 '세종캠퍼스 비전 2030'을 통해 캠퍼스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미래 방향이 공유되었다.

이어진 축하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재학생 3인의 공연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응원단 '루터스'의 무대가 펼쳐졌다. 만찬 시간에는 경품 추첨을 통해 고려대학교 120주년 기념 와인과 다이슨 스타일러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됐다.

이번 행사는 교우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모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향후 발전기금 유치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교를 향한 사랑, 나눔으로 실천하다

국제스포츠학부 노승희 교우

국제스포츠학부 20학번 노승희 교우가 3천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한국어자프로골프협회(KLPGA)에서 7년 차 프로 선수로 활약 중인 노승희 교우는 지난해 6월 커피차 기부에 이어 또 한 번 뜻 깊은 나눔을 실천하며 모교 사랑을 이어 가고 있다.

이전 커피차 기부에서 이번 3천만 원 기부까지 이어 오시게 된 동기가 있나요?

KLPGA 대회에는 전 대회 우승자가 선수들에게 커피차나 간식차를 보내는 문화가 있습니다. '첫 우승을 하게 된다면 꼭 학교에 커피차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해 왔고, 2024년도 한국어자오픈에서 꿈꾸던 우승을 이루며 학교에 커피차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번 기부 역시 오래전부터 마음 속에 품고 있던 희망이었습니다. 대학에 재학 중 고려대 강남교우회 골프인재 육성 장학금을 두 차례 받았는데, 그때의 감사함이 기부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선수로서의 성과가 다시 기부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뜻 깊게 느껴집니다.

모교 사랑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문화스포츠대학 학장이신 배상우 교수님께서 무명 선수였던 저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시고, 선수로서 도약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 늘 웃음과 위로, 응원을 보내주신 전현식 교수님(생명정보공학과), 정재화 교수님(전자·기계융합공학과)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학업과 선수 생활을 병행하며, 대학은 어떤 버팀목이 되어주었나요?

학교생활은 저에게 정신적인 보약 같은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다양한 수업을 통해 생각의 크기를 키울 수 있었고, 더 멀리 바라보며 골프에 대한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선수로서의 실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수로서, 그리고 고려대 교우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가요?

2026시즌에는 다승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것들에 충실하며, 그 결과가 어디로 이어질지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고려대 교우로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우승과 기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으면 합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말입니다. 그 답들은 이미 각자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2025년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납입액(원) 기준(금액, 성명순)

3천만 원 이상

노승희	교우
(주)리서치멘토	

1천만 원 이상

동화기업(주)	
재단법인 유중문화재단	
박세진	교우
신성태	세종산학협력단 특임교수

5백만 원 이상

경영학과 84학번 동기회	
(재)격암문화재단	
재단법인 메디힐장학재단	
(재)보건장학회	
(주)인포벨리코리아	

3백만 원 이상

고려대학교교우회(2)	
김효민	중국학과 교수
대상 주식회사	
재단법인 한국방정환재단	

1백만 원 이상

(재)고려대학교교우장학회	
(재)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재)일산장학회	
김선혁	글로벌경영전공 교수
김우철	교우
김정우	문화콘텐츠전공 교수
모피어스 주식회사	
한상훈	약학과 교수

1백만 원 미만

OZAKI	교우
WANG QIANG	학생
가신현	문화창의학부 교수
강민성	교우
강상원	교우

강석현	교우
강성근	교우
강수경	교우
강승훈	직원
강신후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교수
강영기	교수
강원표	교우
강찬석	교우
강충현	교우
강태상	시설안전팀 부장
강한진	교우
강해정	교우
고대근	교우
고상문	교우
고왕인	교우
고창환	교우
공선식	평가분석팀 주임
공영경	교우
곽미정	직원
곽민지	대학원연구교육팀 주임
곽병일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교수
곽인호	교우
곽환봉	교우
구경완	교우
구상희	글로벌경영전공 교수
구현정	교우
권계현	교우
권광호	전자기계융합공학과 명예교수
권기만	교우
권나연	직원
권영훈	교우
권정훈	교우
권지우	교우
길준수	교우
김갑번	글로벌학부 교수
김건수	교우
김경년	총무팀 주임
김경봉	교우

김경임	약학과 교수
김경화	교우
김광수	교우
김광훈	문화창의학부 교수
김기성	교우
김기우	교우
김기환	경제통계학과 교수
김다솔	교우
김대원	교우
김대훈	교우
김도형	산학교육센터 차장
김동우	교우
김동욱	교우
김동주	경제정책학전공 교수
김동환	교우
김득일	직원
김량혜윤	영미학전공 교수
김리선	교우
김영국	교우
김영기	스포츠과학전공 교수
김영섭	컴퓨터정보학과 교수
김무송	교우
김민겸	교우
김민근	교우
김민수	교우
김민중	교우
김민지	교우
김봉중	교우
김상봉	정부행정학부 교수
김상호	스포츠과학전공 교수
김성태	교우
김성표	환경공학과 교수
김세민	교우
김세원	기획예산팀 직원
김순범	교우
김송규	디지털헬스케어공학과 교수
김송욱	교수

김시연	교우
김영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김영기	교우
김영복	교우
김영완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김영진	세종비서실 차장
김용희	교우
김원석	교우
김원태	교우
김유영	교우
김윤정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
김윤종	총무팀 직원
김윤태	공공사회학전공 교수
김은경	고고미술학과 교수
김은성	영미학전공 교수
김이영	교우
김재기	교우
김재년	총무팀 부장
김재영	표준-지식학과 교수
김재원	교우
김정민	교우
김정운	교우
김정환	학부모
김종승	교우
김종택	교우
김준혁	교우
김준화	교우
김자수	교우
김지원	총무팀 과장
김진국	교우
김진민	표준-지식학과 교수
김진영	교우
김진완	교우
김진우	교우
김차용	스포츠비즈니스전공 교수
김창용	교수학습정보센터 과장
김태곤	전자및정보공학과 교수
김태범	세종교양교육센터 차장
김태언	교우
김태윤	교우

김대주	교우
김하늘	교우
김한세	교우
김한준	약학과 교수
김현준	교우
김현철	교우
김현호	국제팀 직원
김형록	교우
김형엽	영미학전공 교수
김형태	교우
김혜숙	교우
김훈	교우
김휘	전자-정보공학과 교수
김희석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나우중	교우
나혜수	융합경영학부 교수
남궁명화	교우
남정인	교우
남충현	교우
노광래	교우
노수연	중국학전공 교수
노순민	시설안전팀 과장
노재성	교우
도이구	교우
동진인테리어	
류택림	학생생활지원팀 부장
마재형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마지연	교우
맹동조	교우
맹치성	교우
모경민	교우
문승훈	대외교류팀 직원
문창운	기획예산팀 차장
문활람	교우
민병학	교우
민영훈	미래모빌리티학과 교수
박강박	전자기계융합공학과 교수
박건우	교우
박경연	교우

박경원	교우
박권용	교우
박근영	교우
박민수	교우
박병선	환경공학과 교수
박봉식	교우
박상민	교우
박상수	국제스포츠학부 교수
박상용	교우
박성규	약학과 교수
박성문	입학팀 직원
박성우	교우
박수은	교우
박솔기	교우
박연미	약학대학행정팀 차장
박영주	교우
박영후	교우
박우욱	교우
박우준	교우
박유희	미디어문예창작전공 교수
박은별	교우
박재민	교우
박재성	교우
박정민	교우
박정희	신소재화학과 교수
박종찬	글로벌경영전공 교수
박종탁	교우
박준성	교우
박지수	교우
박지훈	교우
박진규	교우
박진수	교우
박창훈	교우
박철	글로벌경영전공 교수
박철평	교우
박현영	교양교육원 직원
박형동	교우
방병선	고고미술학과 교수
배경진	교우
배경진	교우
배재석	교우
배재욱	교우
배준서	스마트도시학부 교수
배형진	교우
백선우	교우

백승필	생명정보공학과 교수
백영재	교우
백종수	교우
변남균	교우
변상혁	교우
변영주	약학과 교수
변정수	교우
변지욱	교우
변하섭	교우
서경덕	교우
서민석	컴퓨터정보학과 교수
서성규	전자-정보공학과 교수
서인우	교우
서지현	교우
서형동	교우
석나원	교우
석진철	교우
성시중	교우
손준호	고고미술학과 교수
손지부	교우
손호진	신소재화학과 교수
송경환	교우
송민정	교우
송수진	글로벌경영전공 교수
송인범	교우
송치혁	교우
송혁기	한문학과 교수
송혜원	교우
신광철	교우
신로양안경	교우
신민혁	교우
신승호	교우
신우홍	교우
신은정	교우
신진용	교우
신현구	교우
심광호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안다운	교우
안상훈	교우
안예림	교우
안승용	교우
양원석	직원
양지운	전자및정보공학과 교수
양진경	교우
양현성	교우

염민수	교우
예동희	교우
예승현	교우
오광욱	글로벌경영전공 교수
오상우	교우
오수환	약학과 교수
오승민	문화스포츠대학행정팀 차장
오시문	미래모빌리티학과 교수
오웅	교우
오주석	스마트도시학부 교수
오준영	재무팀 직원
육현주	교우
우상희	교우
우진규	교우
우현구	교우
원광희	교우
원더그라운드	교우
원종관	교우
원태경	교우
유경철	중국학전공 교수
유광우	교우
유보영	교우
유성근	교우
유수지	교우
유재현	디지털경영전공 교수
유준해	교우
유혜정	글로벌학부 교수
육기호	교우
윤관호	교우
윤덕영	교우
윤도상	교우
윤상근	교우
윤성은	학생생활지원팀 직원
윤원식	입학팀 차장
윤재영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윤종필	재무팀 차장
윤홍식	교우
이강근	교우
이건봉	글로벌경영전공 교수
이건희	교우
이경민	교우
이경아	교무학사팀 차장
이경주	교우
이경환	교우
이경환	교우
이경훈	교우

이관우	반도체물리학부 교수
이규도	생명정보공학과 교수
이금열	교우
이금원	반도체물리학부 교수
이기대	교우
이기호	약학과 교수
이대성	교우
이동규	교우
이동현	글로벌경영전공 교수
이동호	교우
이락연	교우
이리이르스모모	교우
이명섭	교우
이민애	교우
이민우	교우
이민정	교우
이민지	교무학사팀 직원
이민철	교무학사팀 부장
이범중	교우
이병길	교우
이병배	입학팀 부장
이병엽	교우
이병희	글로벌경영전공 교수
이상길	총무팀 과장
이상욱	시설안전팀 차장
이상혁	교우
이상호	교우
이세영	교우
이수정	교우
이수진	융합경영학부 교수
이수호	교우
이승규	응용수학과 교수
이승규	KUS대학혁신사업단사업 관리팀 직원
이승우	교우
이승준	교우
이승훈	교수학습정보센터 직원
이연주	응용수리과학부 교수
이우진	학생생활지원팀 주임
이원길	교우
이원호	교우
이윤정	글로벌비즈니스대학 행정팀 차장
이은경	교우
이은주	교우
이은희	약학과 교수

이인희	교우
이장희	교우
이재문	교우
이재선	교우
이재순	시설안전팀 과장
이재우	전자및정보공학과 교수
이재우	환경공학과 교수
이재욱	학생생활지원팀 과장
이재호	교우
이재훈	교우
이정기	글로벌경영전공 교수
이정훈	교우
이종근	교우
이종무	총무팀 부장
이종민	교우
이준서	교우
이진협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이창민	한국학전공 교수
이창호	평가분석팀 부장
이충원	교우
이태섭	교우
이태원	응용수학과 교수
이현근	지능형반도체공학과 교수
이형진	사무처 부처장
이형진	생명정보공학과 교수
이혜라	생명정보공학과 교수
이혜원	교우
이혜원	미디어문예창작전공 교수
이혜인	교우
이호관	교우
이호용	교우
이효원	교우
이희준	교우
임병배	공공정책대학행정팀 차장
임신원	교우
임재천	통일외교안보전공 교수
임종철	교우
임준형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임지훈	교우
임찬규	교우
임채민	교우
임형탁	교우
임희정	교무학사팀 직원
장기훈	교우
장석근	교우

장윤석 세종RISE사업단 사업관리팀 팀장
장정희 교수
장준환 교수
장홍석 교수
전경남 글로벌학부 교수
전상구 교수
전수영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
전승훈 교수
전영호 약학과 교수
전현식 생명정보공학과 교수
전현택 세종경력개발센터 주임
정규언 글로벌경영전공 교수
정다현 교수
정대현 교수
정명철 교수
정석환 교수
정세빈 교수
정수욱 교수
정승영 교수
정승환 첨단반도체공정장비인재 양성사업단 주임
정용화 컴퓨터정보학과 교수
정원희 과학기술대학행정팀 팀장
정은경 교수
정의석 교수
정재화 전자기계융합공학과 교수
정주노 제어계측공학과 교수
정지훈 교수
정진만 학술정보팀 부장
정철기 교수
정철훈 교수
정하림 재무팀 직원
정호열 교수
정효림 교수
정희문 교수
제갈현 교수
제상영 경제통계학과 교수
조덕희 교수
조민호 컴퓨터정보학과 교수
조병진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 학과 교수
조성원 경제정책학전공 교수
조세현 교수
조솔기 교수
조은성 생명정보공학과 교수
조은혜 교수

조재우
조제홍 대학원연구교육팀 부장
조주환
조한철 교수
조해림 교수
조현구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조현중 컴퓨터정보학과 교수
조현혜 교무학사팀 직원
조형식 학부모
조혜나 (위뉴리텍)
주동혁 교수
주성기 교수
지창대 교수
지호진 교수
진서훈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진영민 교수
진효준 교수
차영기 교수
채유원 교수
천성우 전자·정보공학과 교수
최두호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최민석 교수
최민준 대외교류팀 부장
최보승 빅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
최상은 약학과 교수
최성욱 교수
최성진 전자및정보공학과 교수
최수안 약학과 교수
최순일 시설안전팀 주임
최왕규 교수
최원락 교수
최재문 교수
최종택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최지협 IT지원팀 직원
최지훈 교수
최현철 교수
최형재 경제통계학부 교수
피에이티(PAT)서대문점
하서영 총무팀 직원
하운환 생명정보공학과 교수
하재연 미디어문예창작전공 교수
하희종 교수
한미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한복경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한정훈
한진욱 교수
한창희 컴퓨터정보학과 교수
한현승 교수
한호성 교수
함석환 교수
허영민 교수
허정재 교수
허화영 교수
현승진 직원
홍문표 응용물리학과 교수
홍석경 기획예산팀 부장
홍용석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홍정화 제어계측공학과 교수
홍종열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홍종열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홍지연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홍진기 반도체물리학부 교수
홍창수 미디어문예창작전공 교수
황명진 공공사회학전공 교수
황산하 교수
황석현 교수
황성필 신소재화학학과 교수
황수원 교수
황운재 데이터계산과학전공 교수
황종하

고려대학교 공동캠퍼스 조성기금 마련 약정서

문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대외교류팀(044-860-1402)



*성명(기관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휴대폰	전화(자택/직장)			
	Email	직장명/부서			
*기부 금액	<input type="checkbox"/> 1구좌(100만 원)		<input type="checkbox"/> 3구좌(300만 원)		
	<input type="checkbox"/> 5구좌(500만 원)		<input type="checkbox"/> 10구좌(1,000만 원)		
	<input type="checkbox"/> 30구좌(3,000만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구좌 ()구좌 ()만 원		
*기금 사용처 및 용도	<input type="checkbox"/> 지정	건축기금(공동캠퍼스)			
*납부기간	<input type="checkbox"/> 일시납	납부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분납()개월	납부 기간:	부터		까지
*납부방법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CMS)	은행:	예금주:	예금주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급여공제	교직원 번호:			
	<input type="checkbox"/> 무통장입금	하나 55-1004-1004-1004 / 국민 455801-04-030916 (예금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 아래의 동의여부 항목에 체크를 하셔야 기금 약정이 처리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거부 시에는 세액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후원자 서비스 등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 및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을 목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208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등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 이용목적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가. 기부금영수증 발급, 후원자 서비스(예우프로그램의 시행, 뉴스레터 발송 등) 제공의 목적 나. 후원자 초청행사 등 기타 특별 서비스 제공시 본인 확인, 공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 다. 발전기금 출금(CMS 등)의 목적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자택·직장·휴대폰), 이메일, 본교관계, 학과, 학번, 기부(약정)금액, 기부용도, 납부기간, 납부방법, 약정일, 직장, 부서, 직위, CMS 이체시 은행계좌정보(계좌명·계좌번호·예금주주민등록번호 앞6자리), 기금운영방식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본인 요청 시 삭제. 단,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와 기부금 결제정보를 보관

고려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기부할 것을 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자 _____(서명:)